

삶의 질 향상 건축사업 추진

임실군, 문화시설·종합복지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건립공사 본격화

임실군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와 복지, 농업발전에 필요한 건축사업들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과 어르신은 물론 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문화시설과 종합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건립공사를 본격화하면서 돋보이는 주민중심형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16일 군에 따르면 현재 건립 중인 사업은 해피문화복지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운 복지회관, 노인 종합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임실N과수가공공장, 옥정호 관리사무소 등 모두 7개다.

문화와 복지, 농업 및 생태환경 등 분야별로 주민에게 필요한 건축물들이 예산 확보에 힘입어 탄력있게 추진되고 있다.

문화분야에서는 해피문화복지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 해피문화복지센터는 지상 3층(연면적 1,593㎡) 규모로 임실읍 성

가리에 들어서며, 총 48억 8100만원이 투입된다. 생활체육실, 다목적 실습실, 북센터 등이 갖춰지며, 임실읍 소재지의 생활편이 및 문화생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역아이들의 건전한 놀이 및 취미 활동 공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은 총 40억 원을 들여 임실읍 이도리 3층 규모(연면적 1,540㎡)로 신축된다. 현재 착공에 들어간 청소년의 집은 방과후강의실, 청소년카페, 공연연습실, 제빵 체험실, 댄스·노래연습실 등으로 구성된다.

청소년 문화의집이 개관되면 임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건전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 청소년의 꿈꾸는 행복한 놀이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도 최근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임실읍 이도리에 지상 3층(연면적

2,305㎡) 규모로 지어지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총 6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기존의 노인복지관이 재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종합시설로 새롭게 지어진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정신질환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도 22억3800만원이 투입돼 지상3층 규모(연면적 729㎡)로 건립된다. 여기에 식품안전과 운영의 효율성을 반영한 과수가공공장 건립사업도 한창이다. 총 15억원을 투입해 사무실을 비롯한 세척시트 가공실, 포장실 등이 들어선다.

청운면 주민들을 위한 청운복지회관이 새롭게 지어진다. 청운면의 중심기능 활성화와 주민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건립 중인 청운복지회관에서는 목욕탕과 강당, 헬스장, 북카페, 휴게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기업인과 일자리창출 맞손

순창군이 관내 기업인들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군은 지난 1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기업인 대표 30여명이 참여해 '상생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내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순창지역 기업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와 순창군의 기업지원 정책과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한 기업 대표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기업 일선에서 겪는 애로점에 대해 가족기업 등 소기업들이 대부분인 순창지역에서 가족들도 고용 인력

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을 건의했고 황군수는 "불합리한 점은 정부에 보안을 건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기업인들은 식품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순창의 특성을 감안해 물류비 지원과 대형 저온저장고 지원 등을 건의 했고 황군수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특성상 물류비 증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 "농업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대안이고 과감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면서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읍행복보장협의체 정례회의

임실읍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만식, 김학성)는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2018년 첫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임실읍행복보장협의체 운영계획과 위원장, 특화사업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임실읍행복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민·관 연계복지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붕괴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주택 신축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또한 임기만료에 대한 전원이 연임하기로 결정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한방난임지원 참여자 모집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전통 한의약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하여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에 기여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한방난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한방난임지원사업은 남원시와 남원시한의사회가 2014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남원시한의사회 지정 한의원에서 주2회 3개월 동안 침구치료와 함께 탕약 등 처방을 지원받게 되는데, 시술자 1인당 치료비 180만원을 남원시와 남원시한의사회가 각각 90만원씩 부담하여 지원한다.

올해 참여인원은 6명으로 5월 말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지난해 12월부터 3월 16일까지 읍·면·동지역 마을회관 및 경로당 255개소에서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운영해 동절기 활동량이 부족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도왔다.

동절기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싱싱생생 건강교실의 높은 호응도를 반영하여 3월 19일부터 경로당 40곳에서 연중 운영에 들어간다.

싱싱생생 건강교실 연중 운영은 2016년 7개소, 2017년 16개소, 올해 40개소로 매년 늘고 있다.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보건소 담당자와 전문체육강사가 함께 경로당을 방문하여 주2회, 경쾌한 음악과 함께 근력강화를 위한 체조를 실시하고, 혈

압·혈당·콜레스테롤 등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상담 후 질환 의심을 병·의원을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수행한다.

남원시는 연중 운영하는 경로당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킴이 뿐만 아니라 임마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이환주 시장은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문제 해결과, 우리임마 일자리 창출 등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열정을 다해 일하는 전문 강사들을 격려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통행불편 최소화...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회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난 15일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2018년 제1회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된 심의안건 52건을 대상으로 이중굴착 방지 및 공사로 인한 시민의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관리 심의회를 열었다.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52건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13건, 지중화공사 2건, 읍면지역 도로화포장 12건, 오수관로 매설 5건, 상수관로 매설 8건, 도시가스 관로매설 7건, 통신관로 매설 5건이 상정됐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도로의 굴착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적정여부 및 조정,

교통소통 안전대책, 비산먼지 발생방지,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주민불편 저감대책, 이중굴착 등을 사전심의의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공사의 시행시기 조정과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강북대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장(부시장)은 "도로관리심의회 개최를 통해 도로 굴착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각 부서 및 기관·단체간의 이중굴착을 예방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순창서

오늘부터 26일까지 지역 골목상권 '훈풍'

정구대회의 꽃으로 불리는 '제39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가 순창에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는 대한정구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회로 전국에서 1,300여명의 선수 및 임원, 체육회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동호인부로 나누어 남·여 단체전, 남·여 개인전(단식,복식) 혼합복식으로 진행되며 순창군공설운동장 하드코트, 실내코트, 제일고정구장에서 나눠 진행된다.

대한정구협회(회장 이계왕)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정구협회(회장 신동식)가 주관하는 대회다. 특히 10월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전초전으로 시·도팀 간의 전력분석을 위해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 정구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대회 시작으로 지역 골목상



정구대회의 꽃으로 불리는 '제39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가 순창에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권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대규모 선수단 참여로 이미 순창 지역 내 대부분 숙박업소는 예약이 모두 찬 상태다. 또 인근 식당, 슈퍼 등도 참가선수들로 북적일 걸로 예상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난 3월 '2018 순창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기간에 2,000여명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몰려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된 후 두 번째 치르

는 대규모 대회로 군민들의 기대도 크다.

황숙주 군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장기 전국정구대회가 순창에서 열리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차질 없는 경기 운영을 통해 성공적 대회로 이끌고 순창을 찾는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